

사회

# 수사경찰 절반 “이대론 일 못한다”

## 광주·전남,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반발 경과 포기서 제출 (警科)

### 검경 갈등 치안공백 우려

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안에 대한 수사부서 경찰의 반발이 광주·전남 지역 일선 경찰까지 확산되고 있다. 수사할 말고 있는 경찰 상당수가 수사 경찰을 맡지 않겠다는 포기서를 광주·전남지방청에 제출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검·경의 갈등이 자칫 치안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7일 광주·전남지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수사 경과(警科·경찰의 업무 분야) 포기서를 제출한 경찰은 광주 200여명, 전남 80여명이다. 하지만 아직 취합되지 않은 수사 경과 포

기서까지 포함하면 광주는 전체 600여명의 수사경찰 가운데 약 300여명이, 전남은 전체 700여명의 수사경찰 중 300여명이 각각 경과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광주·전남경찰청 관계자 모두 “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안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경과 포기서를 제출한 경찰관이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정확한 인원은 파악중이지만 절반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형사과는 예전 ‘경찰의 꽃’이라고 불렸으나 최근에는 경찰 내에서 가장 일하기 힘든 조직으로 인식되면서 경찰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강제

조정안 발표로 사실상 경찰 고유의 수사권을 검찰의 모든 통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수사경찰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일선 경찰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치안 공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경과 해제·선발은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경찰청 훈령 제574호)에 의해 연 2회(6월, 12월) 공고한 뒤 대상자에 대해 ‘심의회위원회’를 거쳐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수사경과를 반납하면 해당 경찰은 교통이나 경무, 생활안전 등 타 분과 보직으로 이동해야 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검경수사권 조정안=지난 23일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조정안은 그동안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행해온 내사 권한을 인정하되 중요 사건은 사후 검찰의 통제를 받게 했으며,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경찰에 ‘이의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 핵심.

경찰은 지금까지 자체 내사종결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강제조사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내사사건은 검찰이 사후에도 보고를 받아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검사나 검찰직원이 관련된 비리 수사는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경찰의 요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검찰 비리 수사권 달라”

### 일선 경찰들 요구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집단행동으로 반발하고 있는 일선 경찰이 검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만 준다면 국무총리실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경찰의 내사 권한을 축소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검찰에 대한 견제 권한을 얻겠다는 뜻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일선 경찰과 시민 등 150명은 충북 청원군 강내면 석화리 충청꽃살체육공원에서 지난 25일 밤부터 26일 오전까지 밤샘 토론회를 한 후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급 경찰은 “검사의 비리를 경찰이 수사하는 내용으로 총리실의 강제조정안을 수정

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대체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이 공감할 조정안은 내사라는 어려운 권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검사의 비리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검사의 비리를 검사만 수사할 수 있게 한 총리실 조정안의 부당성을 대대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경찰 관계자는 “조정안은 검찰 개혁이라는 형사 소송법 개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만큼 입법예고 과정에서 반드시 문제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청원 토론회나 경찰 내부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분위기를 보면 내사보다 검사 비리에 대한 수사권 문제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성폭행 미수범 2시간 만에 검거

### 4년전 강간범 DNA로 밝혀

경찰이 성폭행 미수범을 2시간 만에 검거하고, DNA수사로 4년6개월 전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을 밝혀냈다.

광주 서부경찰은 27일 원룸에 침입해 부녀자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대리기사 안모(34)씨에 대해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이날 오전 6시께 광주시 서구 동촌동 5 원룸 김모(여·48)씨의 집에 침입해 김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현금 3만 6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긴급체포 매뉴얼에 따라 범행장소 주

변을 포위해 범행장소 50m 인근에 숨어있는 안씨를 발견, 2시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날 광주광산경찰은 주택에 침입해 20대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7)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5월28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조모(여·24)씨의 집에 침입해 조씨를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00여 차례의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불잡혀 해남교도소에 복역중이며, 경찰은 이씨의 DNA가 4년6개월 전 송정동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수갑 반납하는 경찰

전국의 일선 경찰들이 지난 25일 오후 충북 청원군의 한 공원에서 ‘총리실 조정안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집결했다. 일선 경찰들은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수갑을 반납했다.

/연합뉴스

## 목숨보다 음주 처벌 두려웠나?

신호대기중인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실탄까지 쏘며 추격한 경찰관을 때리고 도주했던 뺑소니 운전자(광주일보 24일자 6면)가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서부경찰은 27일 음주상태에서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

났을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쏘며 30여분간 추격했지만 심씨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

이후 경찰은 심씨의 휴대전화와 지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펼쳤고, 심씨는 사건 발생 62시간만인 지난 25일 16시3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 실탄 날아와도 줄행랑 친 뺑소니범

### 음주 자백... 위드마크 측정 불가능

난 심모(4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22일 밤 11시15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신학대학교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인 화정파출소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사고 직후 경찰의 하차 요구에 무시한 채 달아났고, 경

찰은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쏘며 30여분간 추격했지만 심씨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

심씨는 경찰에서 심씨의 휴대전화와 지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펼쳤고, 심씨는 사건 발생 62시간만인 지난 25일 16시3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심씨는 경찰에서 “지인들과 소주를 3~5잔 정도 마셨는데, 영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면허가 취소될 것 같아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심씨가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다”라고 진술하기를 했지만 이미 62시간이 지나 ‘위드마크’(Widmark) 적용을 위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이 불가능해 심씨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檢, 국회의원·군수 국비 확보 논쟁 수사

### “국회의원 예산지원없다”

### 선거법 위반여부 주목

국비 확보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인 국회의원과 군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7일 “민주당 장흥·강진·영암 지역위원회(위원장 유순호) 윤모(50) 국장을 조사한 데 이어 김일태 영암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영암선관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김 군수의 비방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 김 군수는 지난 9월 한 지역 신문과

의 인터뷰에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이 전혀 없었다”고 발언했으며, 이에 유순호 의원 측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군수가 특정 국회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하고 있다며 선거관리 위원회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양측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를 했지만,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조사에 한계가 있어 검찰에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 교부세 확보에 국회의원의 도움이 있었느냐는 사실 관계보다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자료를 넘겨받은 김 군수의 비방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 김 군수는 지난 9월 한 지역 신문과

/중부취재본부=이성규기자 lsh@

## 강진서 중학생 체벌받다 치아 ‘뚝’

### 앞드려 뺨쳐 중 견어쳐어 앞니 부러져

강진의 한 중학교에서 숙제를 안해와 벌을 서던 한 학생의 이가 부러져 학부모가 반발하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

27일 강진 모 중학교 학부모와 이 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사회과목 수업을 하던 A교사가 숙제를 안한 학생 7명을 불러 교실 뒤쪽에 서 ‘앞드려 뺨쳐’를 시켰다.

이 과정에서 A교사는 벌을 받는 학생들의 팔을 연달아 발로 찼으며 두 팔이 모두 겹쳐 채인 B군은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앞니 1개가 부러졌다. B군은 A교사와 읍내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논란은 A교사가 학생을 데려오면서 주머니에 5만원을 넣어줬고 학부모에게는 넘겨져 입술만 터졌다고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 학생 부모는 “교사가 체벌해놓고 입막음하겠다고 아들에게 돈을 슬그머니 줬다는 사실이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l@

## 나원침 (8447) 김종두



### 부산서 전동차에 치어

### 광주 특목고생 사망

지난 24일 오후 4시30분께 부산시 북구 도시철도 2호선 동원역에서 광주의 한 특목고 2학년 A(17)군이 진입하던 전동차에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이 휴대했던 가방에서는 ‘살기 싫다. 스트레스 받는다. 부모님께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다. A군은 지난 13일 가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도시철도 역사 내부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군은 선로에 먼저 내려가 있다가 전동차가 진입할 때 스스로 몸을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이 다니던 학교 관계자는 “A군이 국내 유명대학의 고교 조기졸업자 전형에 지원했으나 불합격했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못 안 훔쳤는데 절도범 몰이” 고소

○40대 여성이 “못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매장 종업원이 절도범으로 몰아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온몸을 수색하는 등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

○27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A(여·48)씨는 지난 25일 오후 6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한 속옷매장에서 옷을 입어보고 나와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직원들이 매장으로 데려간 뒤, 다른 손님 2명이 보는 앞에서 몸수색을 했다는 것.

○경찰은 A씨의 주장을 토대로 조만간 속옷매장 주인을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예약접수 중**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개강: 12월 1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경·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격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사기보** **7급 경찰직** **소방직** **농업직** **9급 야간반** **기술직** **사회복지직** **평생 장학금**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http://www.hanbitgosi.co.kr)